

한라포커스 민선 7기 제주도정 출범 3주년 성과와 과제 (1) 1차 산업 분야

## 인프라 구축 등 중단·표류

매년 농업소득 감소·경영비 증가로 농가 시름 1차 산업 예산 비중도 최근 3년 연속 내리막길 농민 “지원정책 직접 보조 형식으로 추진해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비전으로 내건 민선 7기 제주도정이 오는 7월 1일 출범 3주년을 맞는다. 이에 따라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각 산업별 성과와 과제를 5회에 걸쳐 점검해 본다.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지난 2018년 7월 1일 출범후 지원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1차 산업 육성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제주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제 추진 ▷농가복지 및 농업 경영 안정화 지원 ▷감귤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유통혁신 ▷고령화 대응 영농인력 지원 확대 ▷제주형 스마트팜·물 구축 ▷맞춤형 농산물 거래 정보 구축 ▷제주형 친환경 식재료 공급 체계화 ▷해녀문화 세계화 확대 ▷넙치 등 양식산업 지원 확대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 ▷해양경제도시 조성 국책 사업 추진 ▷유예소년 승마 클러스터 육성 등을

약속했다.

이 중 가격 안정 관리제 대상 확대 추진, 농가복지 및 농업 경영 안정화 지원, 제주형 스마트팜 구축 확산은 이뤄지고 있다. 또 농업농촌 종합정보체계 구축 시범 사업은 농림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 추진 중이다.

하지만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 구축과 제주형 친환경 식재료 공급 체계화,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 해양경제도시 조성 국책 사업 추진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은 줄줄이 중단되거나 표류하고 있다. 유예소년 승마 클러스터 육성도 오리무중인 상태다.

또 코로나 확산 등으로 고령화 대응 영농 인력 지원 확대는 외국인 인력 수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감귤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유통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지감귤 조수입은 2017년산 5371억원에서 2018년산 5030억원, 2019년산 4032억원으로 3년 연속 하

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산 노지감귤 조수입은 7월초 집계된다.

1차 산업 예산은 3년 연속 감소했다. 제주도 전체 예산 중 1차 산업 예산 비중을 보면 2017년에는 4조 4493억원 중 4892억원으로 11.0%를 차지했으나 2018년 5조2977억원 중 5423억원(10.8%), 2019년 5조2851억원 중 5455억원(10.4%), 2020년 5조8229억원 중 5655억원(9.7%)으로 감소했다.

특히 농업소득 감소와 인건비를 포함한 경영비 증가로 농가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2015년 도내 전체 농가 가운데 연수입이 3000만원 미만 가구 비중은 76.3%였으나 2019년엔 80%로 증가했다. 10a당 노지감귤 경영비는 2015년 104만원에서 2019년 150만원으로 증가했고 인건비도 38만원에서 52만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제주지역 농가소득은 4912만원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지만 농가부채는 8254만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2019년의 경우 도내 농가소득은 4896만원, 농가부채는 7512만원이다. >> 2면으로 계속



만개한 치자꽃 향기 26일 제주도 건입동 한 인도변에 활짝핀 치자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다. 이상국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 중소기업 ‘한숨’

정부 내달 1일부터 ‘50인 미만’ 업체로 확대 시행 제주 1만여 업체 대상… “계도 기간 필요” 목소리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제주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데다 인력 추가 채용에 대한 자금 부담 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1주일 법정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5~49인 기업까지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도내의 경우 이번에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 기업은 1만463곳으로 파악됐다. 300인 이상 28곳, 50인 이상 300인 미만 3338곳은 계도기간을 거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자본력이 열약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코로나 여파에 따른 매출 급감, 인력 채용 한계로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기에 계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최근 계도기간 없이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다.

도내서 냉동식품 유통업을 하고 있는 A씨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제로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대비해 최근 인력을 구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 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 어려움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홍보하고 향후에는 제도 시행에 따른 컨설팅 등의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평화와 번영’ 제16회 제주포럼 폐막

‘지속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6회 제주포럼이 이틀간의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제16회 제주포럼 폐회식을 개최했다. 폐막 행사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폐회 연설을 시작으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제주포럼 조직위원장의 폐회 선언,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장의 감사 인사, 온·오프라인 합창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부겸 총리는 “전 세계가 1년이 넘도록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너와 나, 우리 인류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이 엄중한 사실은 왜 우리가 한반도를 넘어서 지구적 차원에서 ‘포용적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올해 제주포럼은 제주가 겪었던 가장 큰 아픔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열렸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며 “제주4·3은 수만의 제주도민이 죽음을 맞이했던 가장 큰 비극이지만, 제주도민의 결단으로 화해와 상생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택 원장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번영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비전과 구상을 공유했다”며 “지속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번영은 서로를 보완하고, 또 번영이 포용적이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1256 27일 17시 기준

## 공력자원 공유화 기금 활용 4200여 가구에 전기료 지원

제주의 공공자원인 바람을 활용한 풍력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여름철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공력자원 공유화기금 3억원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조성된 9000만원 등 총 3억9000만원을 투입, 취약계층 4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7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

고, 하절기 전기요금에 대해 8월부터 가구당 2회에 걸쳐 약 9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공력자원 공유화기금은 지난 2017년부터 풍력발전 사업자들의 공력자원개발 이익공유화 기부금과 제주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전력판매대금으로 조성된 재원이다. >>>한라포커스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표창장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이사장 직책회

귀하는 자조자립현통의 활동조합원으로서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수상공인함으로써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려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제라콘 박영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

신화역사공원 YG

대형 상가매장

월정리 카페

냉동창고 콘크리트 폴리싱

영성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타운 물류센터